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3. 1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 법원, 뉴욕 트럭 테러범에 대해 '무기징역형' 선고 예상
 - 3.13 언론은 美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트럭 테러*로 유죄 판결을 받은 「사이폴로 사이포프(우즈벡 출신 美 영주권자)」 (34)에 대한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사형에 대한 만장일치 未합의로 무기징역형이 예상된다고 보도
 - * '17.10.31 뉴욕 맨해튼에서 트럭으로 자전거도로를 향해 돌진, 8명 사망·12명 부상
- 미국내 증오범죄 증가, '21년 한해 1만 2천여명 피해
 - 3.14 언론은 FBI 보고서를 인용, '21년 한해 미국내 증오범죄는 9,065건으로 전년 대비 11.6% 증가하였으며, 이중 65.4%가 인종·민족적 편견에 의한 것으로 특히 흑인 대상 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고 보도
 - * FBI는 실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산, 전문가들은 美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우려

유 럽

- 스웨덴, '테러 관련자 처벌 강화' 반테러법 입법 추진
 - 3.10 언론은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지구(NATO) 가입의 선결 조건으로 튀르키예가 요구한 '테러 대응 강화'를 위해 반테러 입법안*을 의회에 제출, 6월부터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
 - * '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' 등 테러 관련 모든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구금·기소 권한 대폭 확대(그간 특정 테러 행위와 직접 연관된 사람만 기소 可)

아 · 태평양

○ 서남아시아 테러단체, 아프간內 방치된 美軍 장비 획득

- 3.12 외신은 '21년 美軍 아프간 철수 후 방치된 군사장비(약 9조원 규모) 일부가 파키스탄 탈레반(TTP)·발로치스탄 해방군(BLA) 등 테러단체에 유입, 최신 장비로 무장한 테러범에 의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
- ※ 이들은 테러 시 美軍 제식소총 등을 사용하고, 해당 장비들을 온라인 선전활동에 활용

○ 호주 경제평화연구소, '글로벌 테러 지수 2023' 발표

- 3.14 경제평화연구소는 연례 보고서에서 '22년에는 테러사건당 평균 1.7명의 사망자가 발생('21년 평균 1.3명), 5년만에 테러공격 치사율이 증가하였으며 공격의 88% 이상이 분쟁 국가에서 발생하였다고 발표
- ※ 또한 보고서는 '22년 한해 가장 위협적인 테러집단으로 ISIS를 꼽았으며, 서아프리카 사헬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을 특히 위험한 테러 빈발지역으로 분석

중 동

○ 팔레스타인, 무장세력간 '對이스라엘 투쟁 전선' 확대

- 3.9 외신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반대와 이스라엘의 점령에 대한 저항이 커지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들이 서로 연계하고 있어 이스라엘·팔레스타인間 전면 충돌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
- ※ 테러단체 하마스·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등이 공조하는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

○ 美싱크탱크, '이란-사우디 관계복원'에 중동정세 호전 예상

- 3.12 美아랍걸프국가연구소(AGSI) 등 연구기관들은 7년간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던 이란-사우디 간 '관계복원 협의(3.10)'를 언급하며, "향후 예멘·시리아 내전 등 중동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"고 평가
- ※ 兩國은 '01년 경제·안보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예멘 등 분쟁지역에서 이슬람 종파 맹주국(이란-시아파/ 사우디-수니파) 역할을 수행하며 충돌, '16년 외교관계 단절

○ 이란 법원, 테러 혐의 스웨덴 이중국적자 사형 확정

- 3.12 법원은 '18년 이란 남부 후제스탄州에서 발생한 군사 퍼레이드 테러(사망 25, 부상 250) 주동자로 지목된 이란·스웨덴 이중국적자 「하비브 파라졸라 차아브」에 대해 사형을 확정
- ※ 스웨덴 외무장관은 "모든 경우의 사형 선고를 비난한다"는 성명 발표

예멘 알카에다, 우리 관광객 대상 폭탄 테러 자행

- '09.3.15 예멘 세이운市 시밤 유적지에서 알카에다 조직원(남성, 18세)이 자살폭탄테러를 자행, 대한민국 관광객 사상자 7명 발생(사망 4명, 부상 3명)
 - ※ 예멘 현지 가이드 1명도 현장에서 사망
- 또한, '09.3.18 예멘 수도 사나에서 대한민국 정부대응팀과 유가족을 겨냥한 추가 차량 폭탄테러가 있었으나 피해자는 未발생
- 사건 직후,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(AQAP)는 이슬람 웹사이트에 “한국인을 대상으로 同테러를 자행했다”고 성명을 발표
- 외신(AFP통신)은 同공격이 정부 탄압에 대한 예멘內 알카에다의 보복과 한국의 ‘미국 주도 대테러戰’ 협력에 대한 항의 목적을 가진다고 보도
- 한편, 예멘 정부는 자살폭탄테러 용의자 6명을 검거하였으며 “이들은 외국인 · 석유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 테러도 모의했다”고 발표

테러 단체

Weekly Terrorism Trends

<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(AQAP) >

- (영문 / 별칭) Al-Qaida in the Arabian Peninsula / 예멘 알카에다
- (생성배경) '09.1 '예멘 알카에다'가 '사우디 알카에다'와 통합하여 아라비아반도와 중동內에서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
 - ※ 테러단체 지정: UN('10.1), 미국('10.1), 캐나다('10.12), 호주('10.11), 사우디('13.12), UAE('15.11)
- (활동지역 / 연계세력) 예멘, 사우디아라비아 / 알카에다, 알샤바브
- (수법) 예멘 軍·警 대상 공격 및 다양한 형태의 폭발물(프린터, 속옷, 신체內 은닉 등)을 이용한 주요 인사 암살, 항공기 폭탄테러 등
 - ※ '19.12 미국 플로리다주 해군 항공기지 총기 테러(사망 3명, 부상 8명) 배후 자처
- (특징) 反서방 글로벌 테러에 가장 적극적·공세적이며, 알카에다 지부 조직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단체로 평가